

# 中, 내수 기반 파운드리 공세… 삼성 ‘2나노·美 생산’ 맞불

中 파운드리 업체 성장세 가팔라  
삼성, 선단공정 중심 경쟁력 강화  
美 테일러 공장 4분기 가동 예정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가 확산하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1·2위 업체인 SMIC와 화흥반도체가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나노 등 선단공정과 미국 테일러 공장을 앞세워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올해 2분기 매출 30억 560만달러(약 4조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규모로 분기 매출이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이익은 4억 7920만달러로 같은 기간 261.7% 증가했다.

공장 가동률은 93.7%까지 올라 사실상 풀가동에 가까워졌다. SMIC는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장에 장비를 추가하고 신규 생산라인 가동을 앞당기는 등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2위 파운드리 업체 화흥반도체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높은 가동률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매출은 7억 175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가동률은 102.8%까지 상승했다. AI 수요가 최첨단 반도체에서 성숙공정 기반의 주변 칩으로 넓어지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성장세가 당장 삼성전자의 선단공정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SMIC는 중국에서 7나노 공정으로 CPU와

GPU 등 로직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지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가 제한돼 첨단공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MIC의 점유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업체들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가 성숙공정까지 번지면서 높은 가동률과 가격 상승이

투자 여력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선단공정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 하반기 2세대 2나노 모바일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 AI·고성능컴퓨팅(HPC) 고객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실적발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베이스다이와 미국 고객 주문 확대에 힘입어 파운드리 매출이 증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테일러 공장도 올 4분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테일러 공장은 2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슬라와 165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 고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힌다. 중국 업체들이 성숙공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나노 수율과 공급력을 높이고 AI·고성능 컴퓨팅(HPC)용 반도체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과 삼성전자는 주력 공정과 기술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당장 직접적인 경쟁 구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높은 가동률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생산능력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 속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李 “전작권 환수·핵잠수함 사업 차질없이 추진” 4년간 청년 일자리 28.5만개 감소 AI 고노출 업종 중심 고용조정 확산

을지 국무회의서 자주국방 강조  
폭우 관련 선제적 대비체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2026년도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면서 임기 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UFS)’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한미 동맹이 굳건하려면 자주국방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율러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데 대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체계를 갖추는 데 보다 주력해야겠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사현정 기자 syj@



metro

## 로봇 핵심부품 등 하반기 수주 활동 본격화

>> 1면 ‘LG-엔비디아, 로보틱스’서 계속

양재 데이터팩토리는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된다. LG전자는 연내 투입 로봇을 수백 대 규모로 늘리고,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증폭·합성한 가상 데이터를 합쳐 총 10만 시간 규모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헛수로 환산하면 약 12년치다. 이를 활용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도 고도화한다.

LG전자는 로봇 완제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과 학습 데이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 CEO 직속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신설했으며 창원공장에는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해 초도 생산에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판매를 위한 수주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피지컬 AI 사업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로봇 분야에서

는 LG전자의 하드웨어·제조 역량과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결합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I 팩토리에서는 데이터센터 통합 플랫폼과 LG전자의 인프라 솔루션 연계 및 고밀도 냉각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관련 협업에 나섰다.

류재철 LG전자 CEO는 “그룹 내 핵심 역량을 결합하는 ‘원 열지’ 기반의 시너지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I 고노출 업종 감소기여율 94%

최근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만 5000개 감소한 가운데 감소분의 94%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늘어나면서 AI 확산이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를 강화하는 ‘연공편향 기술변화’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제2026-19호-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무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2025년 기준 51.8%로 미국의 26.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아직 전체 고용률과 실업률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년층과 AI 고노출 업종에서는 차별화된 고용 조정이 나타났다.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28만 5000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6만 8000개가 직무상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줄어 감소 기여율이 94%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증가했고, 이 중 17만 3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다. 전체 증가분의 75.2%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청년과 50대의 고용 흐름이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2022년 6월 대비 청년 취업자 수가 정보서비스업에서 31.4%, 출판업에서 27.4% 감소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6.6%, 전문서비스업은 11.6% 줄었다. 반면 해당 업종의 30~59세 핵심 연령층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 여건도 상대적으로 악화했다. 2022년 11월 이후 대졸 청년

층의 평균 실업률은 7.0%로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의 5.4%보다 1.6%포인트(p) 높았다. ChatGPT 출시 이전에는 각각 8.2%와 8.0%로 비슷했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도 대졸 청년층이 9.6%로 전문대졸 이하의 8.5%보다 1.1%p 높았다. 고학력일수록 AI에 노출되는 지식·분석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고노출 업종의 고용 감소와 일관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 연구진은 최근 청년고용 위축을 모두 AI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팬데믹 당시 과잉채용이 정상화되는 과정과 기업 내부교육 축소, 장기고용 관계 약화, 공채 대신 수시·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방식 변화가 함께 작용했을 수 있어서다.

재택근무 확산도 청년의 비공식 현장학습을 줄이고 기업의 교육·감독 비용을 높여 경력직 선호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직업별 AI 노출도와 재택근무 가능성 사이의 상관계수는 0.742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AI가 청년고용 위축의 단일 원인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던 경력 사다리 약화를 가속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AI 활용도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만큼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은 연구진은 “정책은 기존 초급 일자리를 그대로 보전하기보다 청년이 AI를 활용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